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김혜인(Hye-In Kim)¹⁾

도현심(Hyun-Sim Doh)²⁾

지연경(Yeon Kyung Chee)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sample consisted of 471 adolescents (212 boys, 259 girls) attending high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mediated the impa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only in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such that with mothers' greater psychological control, girls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nd self-conscious emotions, and reported higher depression scores. Similarly, dysfunctional perfectionism functioned as a medi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This tends to support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ame sex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lso had the largest direct effect of all variables analyzed on dep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elf-conscious emotions for either boys or gir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designed to promote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adolescents' mental well-being should focus on parenting of the same sex parent as well as adolescent cognitive characteristics.

Key Words :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역기능적 완벽주의(dysfunctional perfectionism),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s), 우울(depression), 청소년(adolescent).

I. 서 론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와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문제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 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41.3%), 미국의 경우(28.0%)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08).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기에도 우울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9; Kessler, Avenevoli, & Merikangas, 2001), 우울 증상이 자살 사고(Flisher, 1999), 약물 의존(Lewinsohn, Solomon, Seeley, & Zeiss, 2000), 불안 장애(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반사회적 행동(Rice, Lifford, Thomas, & Thapar, 2007)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을 초래하는 선행 변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은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적된다(김애경, 2002; 소선숙·송민경·김청송, 2010; Rey, 1995; Stolz, Barber, &

Olsen, 2005). 청소년기의 경우 독립적 개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의 아동에 비해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Barber, 1996). 국내외적으로 심리적 통제를 우울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애정철회적이며 성취지향적이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뿐만 아니라(김희영·박성연, 2008),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였다(이은경·박성연, 2010). 이와 유사하게 국외연구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고 지각한 아동은 중학교 2학년 때 우울 및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수용적인 양육행동이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엄격히 통제하는 양육행동에 비해 우울, 공격성, 비행,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보다 많이 예측하였다(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자녀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탐색함에 있어서 부모의 성 및 자녀의 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제안(Russell & Saebel, 1997)과 더불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4-5학년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동성 부모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친 반면, 이성 부모의 경우 부정적 양육행동 만이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정문자 · 전연진 · 김진이, 2004).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가 아닌 여아의 우울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희영 · 박성연, 2008). 이 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였으나, 대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Pe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Reed, Goldstein, Moris, & Keyes, 2008), 자녀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Alloy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고려하여 부모의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인지적 측면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완벽주의이다. 적응적 측면의 기능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부적응적 측면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결과물을 평가한다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접하기가 쉽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기능적 완벽주의에 비해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김현정 · 손정락, 2007)를 포함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남궁혜정, 2002;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업 및 작업 영역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점(Stoeber & Stoeber, 2009)에 근거할 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기에 비해 완벽성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 특히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측면인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들 중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서적 측면인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s)를 들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수치심 및 죄책감과 같은 정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수치심의 경우,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Tangney & Dearing, 2002), 실패의 잘못을 전체적인 자신(entire self)의 탓으로 돌려서 나타나는 정서(Lewis, 1971)라는 측면에서 죄책감에 비해 더 부정적인 정서로 간주된다. 이는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높은 수치심은 높은 우울과 관련되었다(김용희, 2008; 이영호 · 심종은, 2000; Alexander, Brewin, Vearnals, Wolff, & Leff, 1999; Harder, Cutler, & Rockart, 1992; Webb, Heisler, Call, Chickering, & Colburn, 2007). 반면 죄책감의 경우, 부정적 정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여, 부정적 정서이지만 수치심에 비해 병리적 심리증상과 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남기숙, 2008; Harder et al., 1992)이 보고되는가 하면,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는 연구결과(송수민, 2008)도 보고된다.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서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우울에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Tangney, 1996). 그러나 자의식 정서와 우

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 뿐만 아니라 수치심만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의 자의식 정서는 우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라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자녀관계를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연구들은 자의식 정서의 초기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Kochanska, Gross, Lin, & Nichols, 2002; Zahn-Waxler, 2000), 부모의 양육행동과 수치심 및 죄책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철회는 자의식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Ferguson & Stegge, 1995). 그러나 양자 간의 관계는 수치심인지 혹은 죄책감인지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견되어, 남녀 모두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았던 반면, 죄책감은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애정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가 높고 아버지의 애정적 통제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Abell & Gecas, 1997). 애정철회는 심리적 통제방법 중 하나인 점(Barber, 1996)을 감안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수치심 및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역기능적 완벽주의도 자의식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완벽주의자들은 주로 높고 완고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해보는 자기-평가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다(Tangney, 2002). 따라서 자기-평

가적 정서(self-evaluating emotion)라고도 불리는 자의식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가진다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수치심 및 죄책감 등 부정적 자의식 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역기능적 완벽주의라고 여겨지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치심도 높은 반면 죄책감은 낮았다(Tangney, 2002; Wyatt & Gilbert,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 때 수치심 및 죄책감 모두 높았으며(Fedewa, Burns, & Gomez, 2005),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치심을 보고하는 한편(Stoeber, Harris, & Moon, 2007),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증가하였다(Ashby, Rice, & Martin, 2006). 그러나 완벽주의와 자의식 정서를 연결시킨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근래의 몇몇 연구들(예 : 김정미, 2009; 서영숙 · 김진숙, 2009)을 제외하고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러 이론가들은 완벽주의의 발생 원인을 아동기 경험,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제안하였는데(Blatt, 1995; Sorotzkin,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완벽주의의 예측 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변수,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희영 · 박성연, 2008; 양승윤, 2008;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raddock, Church, & Sand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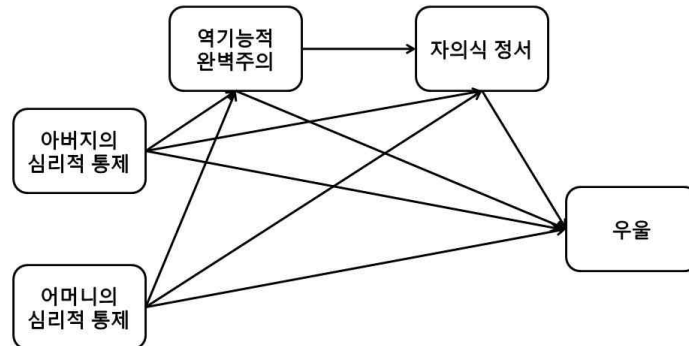
에서는 부모의 민주적·권위주의적·허용적 양육행동과 함께 심리적 통제를 추가하여 이들과 자녀의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역기능적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기능적 완벽주의도 예측한 반면,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1년 뒤 청소년의 부정적 완벽주의가 높았다(Soenens et al., 2008). 아울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반응성, 행동적 통제 가운데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과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다(Soenens et al., 2005). 국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완벽주의,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았다(김희영·박성연, 2008; 양승운, 2008).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취, 특히 학업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성취에 있어서 완벽성의 문제가 더욱 강조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부모의 압력 또한 클 것이다. 이렇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력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문제가 청소년기에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위의 네 변인들 간의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 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우울간의 관계를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 하였다(김희영·박성연, 2008; Enns, Cox, & Clara, 2002) 완전 매개하였다(Kenny-Benson & Pomerantz, 2005). 또한 자녀의 연령 혹은 성에 따라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부분 매개 하거나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도 보고된다.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수치심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Ashby et al., 200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우울 및 불안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의식 정서가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황은수·성영혜, 2006)도 발견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 변인들 중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매개 경로에 있어 성차가 나타난 연구들이 있지만(예 : 김희영·박성연, 2008; Ashby et al., 2006; Soenens et al., 2008) 실제 성차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울러,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자녀의 성에 따라 우울에 대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녀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1).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는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471명의 남녀 청소년들이다. 연구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우울이 청소년기 중에서도 15-18세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Hankin et al., 1998)와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벽주의와 같이 스스로 세운 규범과 기준이 더 내재화되고(Harter, 1992), 내면적 사고에 따른 죄책감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Williams & Bybee, 1994)에 근거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구성은 남학생이 212명(45.0%), 여학생이 259명(55.0%)이었고 평균연령은 17.4세($SD = 0.65$)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47.1%와 62.4%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었다(86%).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

식 정서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Schaefer(1965)의 CRPBI (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을 조주연(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등이 있다.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 당 2개 이상의 측정변수가 필요하다는 제안(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에 근거하여 척도의 문항을 나누는 파슬링(parceling)을 사용하였다. Little과 동료들은 세 가지의 파슬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할당(random assignment) 방법을 사용하여 2개의 측정변수로 파슬링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각각 .72와 .76, 어머니의 경우에는 각각 .71과 .7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83이었다.

2)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을 남궁혜정(2002)이 합쳐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은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의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을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와,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Hewitt and 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MPS)을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이다. 남궁혜정의 척도에는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두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Bieling, Israeli, & Antony, 2004; Ennet al., 2002)에 근거하여, 역기능적 완벽주의 문항만(20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등이 있다. 응답 범위는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척도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경우 역시 측정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 방법(Little et al., 2002)으로 2개의 측정변수로 파슬링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각각 .76과 .75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6이었다.

3)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는 Tangney(1989, 1990, 1991)에 의해서 개발된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C, TOSCA-Adol을 류설영(1998)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척도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우울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정서를 평가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12가지 상황이 시나리오로 제공되고, 각각의 상황 아래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반응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12개의 시나리오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정서 반응에 대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제시되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매점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서 친구의 음료수를 었질렀습니다’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의 경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죄책감의 경우 ‘나는 친구에게 미안하게 느낄 것이고, 내가 잘 보고 갔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 제시된다. 본 척도는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각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수치심의 경우 .75, 죄책감의 경우 .75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2이었다.

4)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보고된 CES-D의 다양한 요인 모형들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검증한 국내 연구결과(배성우·신원식, 2005)를 근거로, CES-D 척도의 원저자인 Radloff (1977)가 제시한 요인구조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이하, 신체/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정의 경우 ‘우울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감정의 경우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이 있고, 신체/행동 둔화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극히 드물게)부터 4점(거의 대부분)의 4점 척도이며, 우울 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의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전체 집단의 CES-D 총점 평균은 16.96점($SD = 7.78$)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집단의 평균점수는 16.54점($SD = 7.91$), 여자 청소년 집단의 평균 점수는 17.31점($SD = 7.66$)이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우울 감정 .86, 긍정적 감정 .72, 신체/행동 둔화 .76, 대인관계 .79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0년 2월에 서울시와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두 곳의 1, 2학년을 선정하여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

지 가운데 536부를 회수하였으며(약 97.5%의 회수율), 이 중 한 쪽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28부)와 기재가 미비한 경우(37부)에 속하는 65부를 제외하고 총 4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AMO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측정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해 구조모형에서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살펴본 결과, 각각 10 이하(1.88-5.70)와 0.1 이상(0.18-0.53)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의식 정서의 측정변수 중 하나인 수치심의 오차분산

〈표 1〉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471$)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β	S.E.	C.R.	<i>p</i>
부 심리적 통제	부 심리적 통제 1	1	.662	-	-	-
	부 심리적 통제 2	1.378	.908	.151	9.152	***
모 심리적 통제	모 심리적 통제 1	1	.732	-	-	-
	모 심리적 통제 2	1.094	.853	.107	10.227	***
역기능 완벽주의	역기능 1	1	.811	-	-	-
	역기능 2	1.052	.949	.063	16.635	***
자의식 정서	수치심	1	.987	-	-	-
	죄책감	.399	.428	.039	10.110	***
우울	우울 감정	1	.873	-	-	-
	긍정적 감정	-.602	-.484	.059	-10.285	***
	신체/행동 둔화	.820	.776	.047	17.445	***
	대인관계	.834	.714	.052	16.022	***

*** $p < .001$.

이 음수로 나타나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가 발생하여 오차분산을 0에 가까운 값으로 고정시켰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 = 183.824(df = 45)$, GFI = .940, TLI = .903, CFI = .934, RMSEA = .081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RMSEA 지수의 값이 .80 이상이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를 고려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1 측정변수 오차항과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측정변수의 오차항 간에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형 수정을 거쳐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28.857(df = 44)$, GFI = .956, TLI = .939, CFI = .960, RMSEA = .064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또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β)의 경우, 본 측정모

형에서는 모든 β 값의 절대값이 .428-.987로서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하였다(송지준, 2009)(표 1).

2. 구조모형에서의 성차

구조모형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고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의식 정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높았으며($r = .28, .29, .45, .33,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고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r = .11, .12, p < .05, r = .39, p < .001$).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고($r = .44, .43, p < .001$), 아버지

〈표 2〉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N = 471$)

잠재변인	1	2	3	4	5
1. 부 심리적 통제	-				
2. 모 심리적 통제	.49***	-			
3. 역기능 완벽주의	.44***	.43***	-		
4. 자의식 정서	.11*	.12*	.39***	-	
5. 우울	.28***	.29***	.45***	.33***	-

* $p < .05$. *** $p < .001$.

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도 높았다($r = .49, p < .001$)(표 2).

이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Bentler(1980)가 제안한 측정동일성(Metric Equivalence) 검정 방법과 Steenkamp와 Baumgartner(1998)가 제안한 스칼라의 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정 방법이 있는데(김계수, 2007),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사용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성에 따라 요인부하량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A)을 기준으로, 성에 관계없이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성을 비교하는 측정 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도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은 측정 제약모형 및 구조공분산 제약모형과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이 서로 다른 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A : B \rightarrow \Delta\chi^2 = 21.706; \Delta df = 7; p = .003$). 또한, 측정제약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 일부 지수의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A : C \rightarrow \Delta\chi^2 = 33.118; \Delta df = 19; p = .023$). 따라서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에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교차타당성(김계수, 2007)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을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 구조모형에서의 성차 ($N = 471$)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A	66	225.969	90	.927	.906	.936	.057
B	59	247.675	97	.921	.903	.929	.058
C	47	259.087	109	.917	.914	.929	.054
D	24	2248.622	132	.484	.000	.000	.185
A : B		$\chi^2_B - \chi^2_A = 21.706$		$df_B - df_A = 7$		$p = .003$	
A : C		$\chi^2_C - \chi^2_A = 33.118$		$df_C - df_A = 19$		$p = .023$	
B : C		$\chi^2_C - \chi^2_B = 11.412$		$df_C - df_B = 12$		$p = .494$	

- 주) A =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Measurement Weights)
 C =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 Structural Covariance)
 D =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G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남자 청소년	83.888	44	.000	.939	.938	.958	.066(.044-.087)
여자 청소년	88.102	44	.000	.945	.943	.962	.062(.043-.081)

3. 남녀 청소년의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chi^2 = 83.888(df = 44)$, GFI = .939, TLI = .938, CFI = .958, RMSEA = .066, 여자 청소년의 경우 $\chi^2 = 88.102(df = 44)$, GFI = .945, TLI = .943, CFI = .962, RMSEA = .062로 나타나 각각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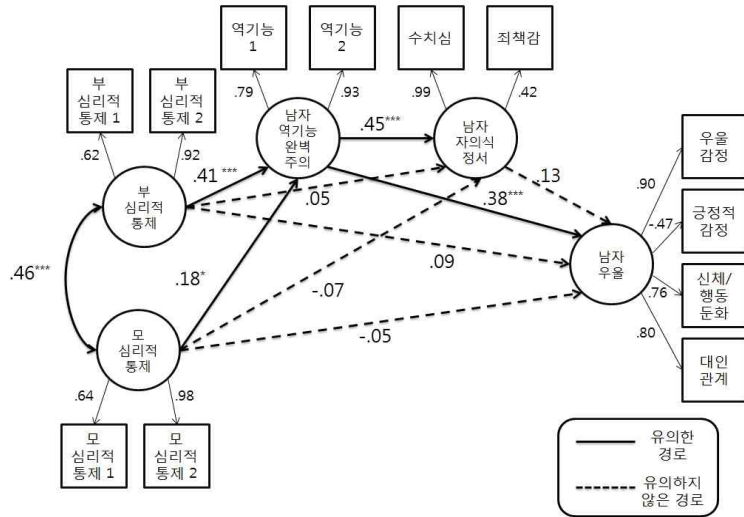
남녀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남자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beta = .384, p < .001$),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의식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beta = .453, p < .001$) 미쳤다. 그리고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각각 $\beta = .405, p < .001, \beta = .183, p < .05$). 그러나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한편, 여자 청소년의 구조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180, p < .05$)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beta = .269, p < .001$) 및 자의식 정서($\beta = .191, p < .01$)는 각각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자의식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52, p < .001$),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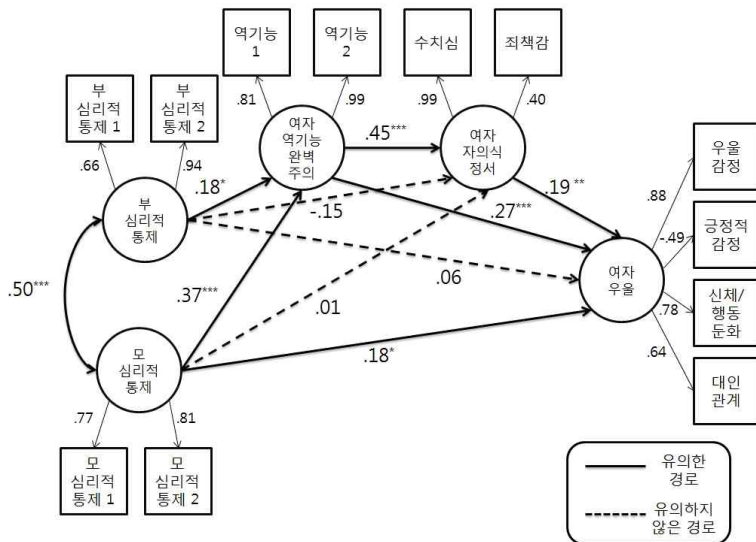
〈표 5〉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71)

경로	남학생 (n = 212)				여학생 (n = 259)			
	B	β	C.R	p	B	β	C.R	p
부 심리적 통제 → 우울	.123	.091	1.004	.315	.081	.057	.729	.466
모 심리적 통제 → 우울	-.043	-.050	-.626	.531	.208	.180	2.020	.043
역기능적 완벽 → 우울	.564	.384	3.970	.000	.381	.269	3.371	.000
자의식 정서 → 우울	.409	.132	1.658	.097	.693	.191	2.595	.009
부 심리적 통제 → 자의식 정서	.020	.047	.535	.593	-.058	-.151	-1.923	.055
모 심리적 통제 → 자의식 정서	-.020	-.071	-.910	.363	.003	.010	.120	.905
역기능적 완벽 → 자의식 정서	.215	.453	4.175	.000	.176	.452	4.667	.000
부 심리적 통제 → 역기능적 완벽	.373	.405	4.231	.000	.175	.176	2.304	.021
모 심리적 통제 → 역기능적 완벽	.107	.183	2.061	.039	.303	.371	4.292	.000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하였음.
* $p < .05$. *** $p < .001$.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쳤다(각각 $\beta = .176, p < .05, \beta = .371, p < .001$).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서 여자 청소년

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 미치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3).

이러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표 6),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beta = .186, p < .01$),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384, p < .01$).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경로가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34, p < .01$),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86, p < .05$)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의식 정서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68,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269, p < .05$)도 유의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므로써,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녀 청소년으로

〈표 6〉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471$)

경로	남학생($n = 212$)				여학생($n = 259$)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부 심리적 통제 → 우울	NS	.186	.186	.241	NS	NS	NS	.262
모 심리적 통제 → 우울	NS	NS	NS		.180	.134	.314	
역기능적 완벽 → 우울	.384	NS	.384		.269	.086	.356	
자의식 정서 → 우울	NS	-	NS		.191	-	.191	
부 심리적 통제 → 자의식 정서	NS	.183	.183	.207	NS	NS	NS	.181
모 심리적 통제 → 자의식 정서	NS	NS	NS		NS	.168	.168	
역기능적 완벽 → 자의식 정서	.453	-	.453		.452	-	.452	
부 심리적 통제 → 역기능적 완벽	.405	-	.405	.265	.176	-	.176	.233
모 심리적 통제 → 역기능적 완벽	.183	-	.183		.371	-	.371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다중상관치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함께,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의식 정서를 통해,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그리고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우울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의 우울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아의 우울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영·박성연,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 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다면, 남자 청소년에 대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결과(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와, 여자 청소년에 대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연구결과들(양유진·정경미, 2008; 이주희·이춘재, 2003; Finkenauer et al., 2005)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발견된 점은 여자 청소년만이 가지는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훨씬 더 늦게 독립하는 경향이 있어(Huston & Alvarez, 1990) 가족관계에 더 민감한 편이다(Sheeber, Hops, Alpert, Davis, & Andrews, 1997). 또한 모-녀관계는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 가운데 가장 가깝고 친밀하다(Kaufman & Uhlenberg, 1998). 즉,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동성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Gecas, 197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 모두를 살펴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기대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져, 수치심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서영숙·김진숙, 2009)와 유사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질수록 수치심을 가지게 되어 우울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Ashby et al., 2006)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요구·통제적이며, 심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조종하려 하는 것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김희영·박성연, 2008; Craddock et al., 2009; Soenens et al.,

2008)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심리적 통제를 권위주의적 양육과 유사하게 개념화한다면(Barber, 2002),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유발하였던 연구결과들(강희경, 2002; Flett, Hewitt, & Singer, 1995)과도 유사하다. 즉,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비판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높은 수준의 수행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Blatt, 1995), 자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부모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실수를 피하고자 하는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의식 정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으며(Ashby et al., 2006), 완벽주의자들이 비완벽주의자들에 비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Stoerber et al.,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워 완벽을 기하는 성향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 비판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 청소년의 모형 모두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 경로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자체보다는 청소년의 인지적 성향이 청소년의 수치심 및 죄책감 정서가 유발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수치심 및 죄책감이 높을수록 우

울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용희, 2008)와 유사하며, 대학생의 수치심이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영호 · 심종운, 2000; Ashby et al., 2006; Tangney Wagner, & Gramzow, 1992)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빠(수치심)’ 혹은 ‘그 행동을 한 건 잘못된 거였어(죄책감)’와 같이 생각하는 정서는 자아비난과 유사한 맥락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아비난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Soenens, 2008)와도 비슷하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의식 정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죄책감이 높을 때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내면화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9)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의식 정서(Lutwak & Ferrari, 1997; Tangney & Dearing, 2002)와 우울(Allgood-Merten, Lewinsohn, & Hop, 1990; Avison & McAlpine, 1992)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부-자관계와 모-녀관계에서만 발견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높여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우울증상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Kenny-Benson & Pomerantz, 2004; Soenens et al., 2005; Soenens et al., 2008)과 일치하며, 엄격한(harsh) 양육행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Enn et al., 2002)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동성의 부모-자녀간에 양육행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다는 보고(Gecas, 197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성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간의 경로에 더해,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같은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미화·류진혜, 2002; Bieling et al., 2004; Hewitt, Caelian, Flett, Sherry, Collins, & Flynn, 2002)과 일치한다. 즉, 청소년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된다면 우울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발견된 점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부모-자녀관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경험이 수치심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들(이기학·신주연, 2003; Andrews, 1995)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인 경로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애정철회가 자녀의 수치심 및 죄책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Abell & Gecas, 1997)와 불일치한다. 또, 여자 대학생의 수치심 및 죄책감이 증가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관계가 없었던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rvey, Gore, Frank, & Batres, 1997)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의식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간의 개별적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간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자의식 정서 간에는 서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로 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보다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보다 강하여 자의식 정서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남녀 청소년의 모형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자의식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였던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달랐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각각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동성 부모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간접적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모-녀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 감소 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 양육행동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도 나타난 점에 근거할 때,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할 때에는 가능한 선행 요인으로서 부정적 정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 가운데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역기능적 완벽주의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 특히 역기능적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청소년 보고에 의존하여, 다양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면접법 및 관찰법 등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자의식 정서 및 우울을 측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혹은 역기능적 완벽주의나 귀인성향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에 치우쳐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더해, 최근 들어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의식 정서를 함께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고려하여 남녀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 중 누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지 알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동성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나타나는 경로에 있어서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을 고려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우울이 나타나는 경로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성에 따라 다르게 개입해야 함을 시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2). 부모의 초기 권위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9(3), 37-55.
- 김계수(2007).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용희(2008). 여대생의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 부모관계, 분리개별화, 수치심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3), 691-704.
- 김정미(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05-225.
- 김현정 · 손정락(200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6(2), 183-205.
- 김희영 · 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15-131.
- 남기숙(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혜정(2002). 성취 추구적 완벽주의 및 실패 회피적 완벽주의와 부적응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설영(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 이은경 · 송주현 · Bart Soenens(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배성우 · 신원식(2005). CES-D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서영숙 · 김진숙(2009). 부모의 양육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61-682.
- 소선숙 · 송민경 · 김청송(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송수민(2008).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 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양승윤(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유진 · 정경미(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회피적 정서조절과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7(3), 669-688.
- 우채영 · 박아청 · 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이기학 · 신주연(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4(3), 421-436.
- 이미화 ·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영호 · 심종은(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485-499.
- 이은경 · 박성연(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주희 · 이춘재(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 전경우 · 최상진 ·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6(1), 59-76.
- 정문자 · 전연진 ·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조주연(2010).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질병관리본부(2008). 제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http : //healthy1318.cdc.go.kr](http://healthy1318.cdc.go.kr)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황은수 · 성영혜(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Abell, E., & Gecas, V. (1997). Guilt, shame, and family socialization :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2), 99-123.
- Alexander, B., Brewin, C. R., Vearnals, S., Wolff, G., & Leff, J. (1999). An investigation of shame and guilt in a depressed samp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2(3), 323-338.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1), 55-63.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 Morocco, A. (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3.
-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277-285.
- Ashby, J. S., Rice, K. G., & Martin, J. L. (2006). Perfectionism, shame,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2), 148-156.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2), 77-9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ieling, P. J., Israeli, A. L., & Antony, M. M. (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Craddock, A. E., Church, W., & Sands, A. (2009). Family of origin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fectionis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3), 136-144.
- Enns, M. W., Cox, B. J., & Clara, I.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6), 921-935.
- Fedewa, B. A., Burns, L. R., & Gomez, A. A. (200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e shame/guilt distinction : Adaptive and maladaptiv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7), 1609-1619.
- Ferguson, T. J., & Stegge, H. (1995). Emotional states and traits in children : The case of guilt and shame.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74-197). New York : Guilford Press.
- Ferguson, T. J., Stegge, H., Miller, E. R., & Olsen, M. E. (1999). Guilt, shame, and symptom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347-357.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51(1), 50-60.

- Flisher, A. J. (1999). Annotation : Mood disorder in suicidal children and adolescents. Recent developm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3), 315-324.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4), 466-482.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arder, D. W., Cutler, L., & Rockart, L. (1992).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3), 584-604.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9).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5), 465-473.
- Harter, S. (1992). Visions of self : Beyond the me in the mirror. In J. E. Jacobs (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99-144). Lincoln, NE :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arvey, O. J., Gore, E. J., Frank, H., & Batres, A. R. (1997). Relationship of shame and guilt to gender and parenting practi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1), 135-146.
- Hewitt, P. L., Caelian, C. F., Flett, G. L., Sherry, S. B., Collins, L., & Flynn, C. A.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6), 1049-106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ston, A. C., & Alvarez, M. M. (1990). The socialization context of gender role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Advanced in adolescent development : Vol. 2,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pp. 156-182). Newbury Park, CA : Sage.
- Kaufman, G., & Uhlenberg, P.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924-938.
- Kenney-Benson, G. A., & Pomerantz, E. M. (2005). The role of mother's use of control in children's perfectionism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73(1), 23-46.
- Kessler, R. C.,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1). Mood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Biological Psychiatry. Special Issue*, 49(12), 1002-1014.
- Kochanska, G., Gross, J. N., Lin, M., & Nichols, K. E. (2002). Guilt in young children : Development, determinants, and relations with a broader system of standards. *Child Development*, 73(2), 461-482.
- Lewinsohn, P. M., Solomon, A., Seely, J. R., & Zeiss, A. (2000). Clinical implications of "subthreshol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

- chology*, 109(2), 345-351.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The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151-173.
- Lutwak, N., & Ferrari, J. R. (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0), 595-598.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5.
- Pine, D. S., Cohen, P., Gurley, D., Brook, J., & Ma, Y. (1998). The risk for early-adulthood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ts with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rchives General Psychiatry*, 55(1), 56-6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ed, T. J., Goldstein, S. E., Moris, A. S., & Keyes, A. W. (2008). Reac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 39-48.
- Rey, J. M. (1995). Perceptions of poor maternal care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4(2), 95-100.
- Rice, F., Lifford, K. J., Thomas, H. V., & Thapar, A. (2007). Mental health and functional outcomes of maternal and adolescent report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9), 1162-1170.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chaefer, E. D.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557.
- Sheeber, L., Hops, H., Alpert, A., Davis, B., & Andrews, J. (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4), 333-344.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65-474.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 Sorotzkin, B. (1998). Understanding and treating perfectionism in religious adolescents. *Psychotherapy :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1), 87-95.
- Stoeber, J., Harris, R. A., & Moon, P. S. (2007). Perfectionism and the experience of pride, shame, and guilt : Comparing healthy perfectionists, unhealthy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31-141.
- Stoeber, J., & Stoeber, F. S. (2009). Domains of perfectionism : Prevalence and relationships with perfectionism, gender, age, and satisfaction with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530-535.
- Stolz, H., Barber, B., & Olsen, J.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 An

-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1026-1092.
- Tangney, J.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9), 741-754.
- Tangney, J. P. (2002). Perfectionism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99-213).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Burggraf, S. A., Gramzow, R., & Fletcher, C. (1990).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Children (TOSCA-C)*. Fairfax, VA :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Gavlas, J., & Gramzow, R. (1991).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Adolescents (TOSCA-A)*. Fairfax, VA :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Fairfax, VA :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31(11-12), 1143-1153.
- Williams, C., & Bybee, J. (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5), 617-623.
- Wyatt, R., & Gilbert, P. (1998). Dimensions of perfectionism : A study exploring their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rank and statu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71-79.
- Zahn-Waxler, C. (2000). The development of empathy, guilt, and internalization of distress. In R. Davidson (Ed.),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 : Wisconsin Symposium on Emotion*. (pp. 22-26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1년 4월 29일 투고, 2011년 7월 22일 수정
2011년 7월 28일 채택